

## 2/15(화) 스가랴 묵상 12

### 스가랴 7: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재건을 위한 말씀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서의 말씀에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사회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전 7-8세기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말씀 과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 금식의 문제

본문 1절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를 언급합니다(1절상,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이는 주전 518년으로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성전 재건은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 베엘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5월 금식을 지속할 지에 관한 질문 때문입니다(3절,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엘의 대표단이 이같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미 언급한대로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매년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곱째 달에도 정기적인 금식을 했습니다(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성경 속의 금식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금식은 모든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다같이 한 곳에 모여서 애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레 16:29, 31). 마치 오늘날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매년 이슬람력으로 9월이 되면 한 달간 해가 뜨는 일출에서부터 일몰 시까지 금식을 시행합니다. 이 전통은 그들의 메시아인 모하메드가 코란을 계시 받은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무슬림들에게 하나의 형식적인 전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몰이 된 이후에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한편, 본문 5절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달과 일곱 번째 달의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다섯 번째 달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기억하고 그 일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왕하 25:8-9,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하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대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레 23:26,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들 중에 일곱째 달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질문과는 다른 초점에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5절하-6,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들의 금식의 행위가 한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금식은 그 횟수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시 51:16-17,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금식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같은 교훈을 통해 그들의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그들 안에 무너진 내적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는 나의 신앙 생활과 금식과 같은 영적인 행위들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마다 주일성수를 철저히 지키고 또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에서의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 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한 목적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과 행위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자주 선포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외적인 의식보다는 내면적 회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을 2:12-23,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미국은 16 일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자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빠져 나올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뉴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Chasefu Theological College(Zambia)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